

기록하고 기억하라



정영창 작 '이시히 시로' (731부대장)

‘역사적 사실과 상처’ 예술로 기록

은암미술관, 5일~10월 5일 기획초대전

김서경·김운성·야지마 츠카사·이동환·정영창·하성흡 참여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의미있는 일이다. 자랑할만한 역사는 물론이고, 때론 치욕적인 역사, 아픈 기억도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반성과 참회의 기록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데 예술가들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시대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가들이 과거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록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한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더 깊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역사가 과거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에 존재하며 발산하는 현상은 의미있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기획초대전 ‘기록하고, 기억하라!’ 전(5일부터 10월5일까지)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상처를 기록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적 범주를 넘어 진실에 접근하고자 얽혀 있는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려한다”고 말한다.

이번 초대전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발언을 멈추지 않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의미있는 기획이다. 전시에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김운성 부부 조각가와 일본인으로 위안부 피해자 사진을 꾸준히 촬영해온 야지마 츠카사 작가, 장준하의 삶 등 근현대사를 목판화로 제작해온 이동환 작가, 오월 현장을 수목화로 표현해낸 하성흡 작가, 사실적인 인물화를 통해 역사를 환기시키는 정영창 작가를 초대했다.

김서경·김운성 조각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부터 시민운동가들의 존재를 입체 형상으로 제작해 한 장소에 모았다. 정면을 직시하고 있는 인물상이 인상적인 ‘과거 오늘을 묻다’와 독립투사들의 손과 발을 형상화한 ‘독립지사를 기억하며’ 등이 전시된다.

일본인 작가 야지마 츠카사는 2003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주제로 사진 작업을 이어가고



김서경·김운성 작 ‘과거 오늘을 묻다’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 위안부 생존자들을 영글에 담은 작품들을 전시한다. 전쟁이 끝나고 해방을 맞은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채 세상을 떠난 여성들의 흔적을 찾고 생존자들의 초상화를 찍는 과정을 통해 ‘기억’의 의미를 묻는다.

이동환 작가는 구한말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아나키스트운동을 주도한 이회영 등이 중심이 돼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의 흐름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수백개의 목판화로 구성된 ‘독립운동전쟁’은 목판화가 갖고 있는 강렬한 칼맛과 어우러져 강한 인상을 주며 하나 하나의 작품을 한 시대의 생생한 증언이 된다.

독일에서 활동중인 정영창 작가는 사실적인 인물화를 통해 역사를 이야기해왔다. 이번에 전시하

는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인간적인 인체실험을 통해 생물학기술을 개발하던 731부대를 소재로 했다. 수목과 아크릴 등을 혼합해 표현해낸 이시히 시로 731부대장의 초상화와, 당시 그들이 받은 훈장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1980년 5월 광주를 겪은 하성흡 작가는 담담한 수묵으로 역사적 현장을 재현한다. 북한군으로 몰렸던, 일명 ‘김군’의 모습과 ‘정의사회 구현되다’ 등의 작품을 통해 오월 광주를 이야기한다.

전시 기간에 참여작가들과의 대화도 예정돼 있다. 오는 30일 오후 3시 은암미술관에서는 작가들이 함께하는 토크쇼 형식의 행사가 열린다. 전시 오픈 행사는 7일 오후 5시, 토크쇼 참가 접수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리꾼 전인삼, 동편제 춘향가 연창 무대

8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소리꾼 전인삼(사진)과 문화생들이 제 712회 목요일국악한마당(8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박봉술 동편제 춘향가 연창’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소리꾼 전인삼과 전남대학교 소리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주희, 연구원 남다모, 연구원 이린, 연구원 장예림, 광주시립창극단 단원 방운수, 남원시립국악연수원 교수 유순덕 등이 판소리 주요 눈대목을 연창한다.

‘박봉술제 동편제 춘향가’는 무형문화재로 지정

된 적벽가와 달리 활발히 전승되거나 공연되지 못했다.

이후 청년시절 박봉술에게 사사한 전인삼이 학습내용과 전남대에 기증된 박봉술 춘향가 음원과 이보형이 보유한 음원을 바탕으로 복원했다. 박봉술의 춘향가는 사실과 음악적인 면에서 동시대의 다른 창자에 비해 고제의 특성을 잘 간직한 소리로 평가받는다.

특히 다른 바디에 비해 춘향을 좀 더 서민적이고 발랄한 여인으로 그린 것이 특징이다. 또 끝메미가 두드러지고 비장미는 약하며 판소리 곳곳에 걸쭉하고 구수한 재담이 많이 등장한다. 다른 바



디와 달리 지순한 사랑보다는 자유분방하고 발랄한 사랑으로 표현했으며 절박하고 해학적인 생동하는 서민적인 초기 판소리와 맥이 닿아 있다.

고수에는 광주시립창극단 김규형 예술감독,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 박시양, 국립민속국악원 조용안 예술감독이 함께한다.

전석 초대. 매회 공연은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 서비스된다. 문의 062-350-4557.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성역사문화콘텐츠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광주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 ‘2022년 여성역사문화콘텐츠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재단은 근대화 시기 광주여성들의 움직임, 여성 근대교육, 여성선교사, 광주학생독립운동 등의 주제로 탐방로를 개발하고 그 속의 여성역사들을 문화적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은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12시까지

진행되며 여성사의 필요성, 탐방로 관련 여성인물, 사건, 장소에 대한 소개, 대구 여성사 탐방로 인받지길 사례 연구, 해설 실습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사업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문화해설사 활동 경험자를 우대한다. 조선대 역사문화학과와 공동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광주여성사를 시민들과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향유하기 위한 마련됐다.

이정선 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와 이동순 조



이동순 교수

문의 광주여성가족재단 성평등문화팀 062-670-0562.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백시종 작가, 이병주국제문학상 대상

여수 출신...장편 ‘황무지에서’ 상금 2000만원

여수 출신으로, 광주일보(옛 전남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던 백시종 작가가 이병주국제문학상 대상에 선정됐다. 수상작은 장편소설 ‘황무지에서’이며 상금은 2000만원.

이병주기념사업회는 제15회 이병주국제문학상 대상에 백시종 작가의 ‘황무지에서’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병주사후 30주기를 맞는 뜻 깊은 해로 그동안 백시종 작가는 ‘여수의 눈물’ 등 근현대사의 아픔을 형상화한 작품을 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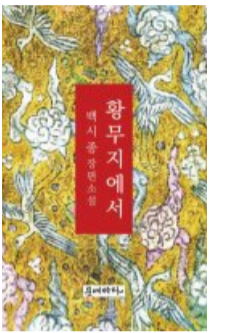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이 시대의 아픔과 애환으로 점철된 삶의 현장을 직시하며 더 높은 가치인 진정한 화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병주문학상 대상은 매년 기 발표된 여러 나라의 문학작품 중 역사성과 이야기성을 갖춰 크릴 등을 혼합해 표현해낸 이시히 시로 731부대장의 초상화와, 당시 그들이 받은 훈장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번 수상작 ‘황무지에서’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탓에 민둥산이 태버린 국토에 생애를 바쳐 산림녹화사업을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시대의 아픔과 애환, 사랑 이야기를 특유의 관점으로 풀어낸다.

백 작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만 1년간 창작에 매달렸다. 창작을 하면서 집필 그 자체가 마치 좋아하는 리듬에 몸을 맡긴 것처럼 막힘없



이 글을 썼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이켜보면 우리는 역사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했으며, 그것을 청산하는 데 얼마나 열과 성을 다했는지, 혹은 흐지부지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되래 사사로운 권력욕으로 진실을 찬탈하지는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판단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백 작가는 1967년 동아일보-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한국소설문학상·오영수문학상·채만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창작집 ‘주홍빛 갈매기’를 비롯해 장편소설 ‘물 위의 나무’, ‘누란의 미녀’, ‘여수의 눈물’ 등을 펴냈다.

한편 이병주문학연구상에는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일 하동군 이병주문학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외되고 버려진 것들에 대한 애정·연민

양나희 초대전, 8일~10월2일 드영미술관

지난 2018년 문을 연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청년작가들을 발굴·지원하는 기획전시회를 꾸준히 열어나왔다.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2022년 청년작가 공모 선정전으로 오는 8일부터 10월2일까지 양나희 작가 초대전을 진행한다.

‘Useless... but Beautiful’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양 작가는 종이부조 형식의 풍경작품을 선보인다.

양 작가에게는 많은 이들이 쓸모없다 생각하는 골판지 등이 중요한 작품 재료가 된다. 일회성 포장재로 쓰고 버려지는 골판지 등은 그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이야기를 품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된다.

양 작가는 골판지의 종이재질이 갖는 부드러움과 고른 골판지가 만들어내는 두께와 음영을 이용해 입체감 나는 부조 효과를 쌓고 그 위에 사실적으로 풍경을 그려낸다.

작가 작품 속에서 구현해내는 풍경들은 소외되고 잊혀진 것들이다. 그가 만들어낸 골판지 풍경, 별빛 반짝이는 하늘을 이고 있는 달동네 모습, 고즈넉한 마을 풍경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다. 또 따뜻한 파스텔톤의 색감이 어린 그의 작품은 무엇보다 따뜻하다.

양 작가를 초대한 드영미술관은 “한번 소비되고 버려진 존재가 되는 것들에 주목하는 양나희 작가는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호남대 미술학과와 전남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양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상해 윤아르떼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했으며 광주



‘삼, 풍경’

미술상, 전남미술대전 대상, 남농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번 초대전 기간 중에는 전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오는 24일 열리는 ‘종이로 만드는 세상!’은 전시해설사가 작품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양나희 작가의 작업기법을 탐구하고 활용, 나의 동네를 표현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초등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의 062-223-656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일상 속 국악강좌 참가자 모집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이 지역민의 일상 속 국악교육을 위해 전남도립국악단과 함께 ‘국악강좌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국악강좌 ‘우리소리 배워보세’ 프로그램은 ▲12현 가야금 ▲25현 가야금 ▲소고춤 ▲입춤 ▲웃다리 사물놀이 ▲우도설장구놀이 등 총 6개 강좌로 운영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프로그램별 15명 이내로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접수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교육은 9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2회(화요일-목요일), 2시간씩 남도소리유평터 내 연습실에서 진행되며 전액 무료이다. 문의 061-981-6677.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